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15)

‘로마서 강해 15 (유익의 목사)’의 내용을 정리/보충한 것입니다.

5장[3] (5:9~21)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5장 9-21절을 특징짓는 단어는 ‘더더욱(much more)’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 안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한글 개역 성경은 ‘더(much)’를 빼고 ‘더욱(more)’이라고만 번역하여 의미가 좀 축소된 느낌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분명히 4번 모두 ‘더더욱’이라고 되어있습니다.¹ 단순히 비교만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굳이 ‘더더욱’이라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 무척 강조하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가 그토록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A 보다 더더욱(much more) B 하다

우선 9절과 10절에 나온 이 표현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¹ $\pi ο λ λ ω μ ἄ λ λ ο ν$ / 영어성경들은 대부분 much more 로 번역했습니다.

| | 9절 | 10절 |
|-----|---|--|
| A |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
| 더더욱 | <u>더더욱</u> (much more) | <u>더더욱</u> (much more) |
| B |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

[9절의 ‘더더욱’] 앞 절(8절)부터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힘든 일인데,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할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 주시지 않겠는가’, 즉 ‘당연히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논리입니다.

난이도(?)만 따지고 보면 [A]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의롭게 해 주시는 것이 [B] 이미 의인 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 | |
|-----------------------------|---------------------|------------------------------------|
| [A] 불가능할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 | (그러나) 더더욱 | [B]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확실함 |
|-----------------------------|---------------------|------------------------------------|

[10절의 ‘더더욱’] 9절이 ‘의롭게 됨’을 말하고 있다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화해)’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인데,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논하는 10절에는 일부러 ‘원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깨지고 원수까지 되었는데, 그 원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엄청난 헌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화목하게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A] 원수였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그러나)
더더욱

[B]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확실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간 송석춘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여 초고속으로 승진을 거듭해 많은 봉급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거나, 뇌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가 간 곳은 미국 플로리다였는데, 당시 플로리다는 인종차별이 극심했었습니다. 한국처럼 뇌물 같은 부조리는 없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의 큰 아들이 다녔던 학교에는 동양인이 단 한 명뿐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온갖 모욕과 인종차별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밤중에 학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였는데, 전례가 없던 큰 사건이었기에 지역이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결국 그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송씨의 가족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인들은 ‘한국 사람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송석춘씨는 학교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매 주마다 와서 학교 청소를 하겠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의 잘못을 보상하고, 가

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소.”

그와 아내는 초등학교 자녀들과 매주 주말마다 열심히 학교를 청소하였는데, 그 모습이 한 지역신문 기자의 눈에 띄게 되었고, 송씨 가족의 이야기가 조그만 지역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AP 통신을 통하여 전 미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송씨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미 전역에서 ‘아들의 변호사비에 보태 쓰라’면서 성금이 쇄도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석방되었고, 지금은 성장하여 항공분야의 연구원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송석춘씨 가족들이 학교를 청소한
이야기를 담은 지역 신문
(1978년 2월 4일자)

송석춘씨 가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미국 사회와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었고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미국인들이 감동하게 되었고, 결국 그 희생을 바탕으로 미국사회와 그 아들 사이에 ‘화해’ 즉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들의 사이의 ‘화목’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인간들의 죄가 너무나 컸기에, 그보다 더 큰 희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9-10절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 ‘더더욱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살다 보면, 이웃과 조그만 불화를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작았던 불화만 화해 되어도 매우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불화가 해소되어도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소되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로마서 5장은 그 큰 기쁨과 감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우리가 ‘**구원** 받은 사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실’ 중에서, 우리가 더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즉 지옥에서 고통 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 역시 더할 수 없이 기쁜 일이지만, 성경이 더욱 강조하는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 생기는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안락함**’보다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생기는 즐거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생기는 즐거움

[2]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에서 ‘즐거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² ‘자랑한다’는 뜻을 가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³ 그래서 새번역 성경도 아래와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새번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21세기 한국에서, 기독교는 이제 부끄러운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말하기가 창피해서 몰래 교회를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다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하루하루가 즐겁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죄: 12~21절]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삼위일체’와 ‘원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굳건히 믿으며 주장해 왔기에, ‘삼위일체’가 가장

² *καυχάομαι* (즐거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자랑한다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더 많습니다)

³ 롬2:23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고전1:29 이는 아무 욕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⁴ NIV 성경도 1984년 판에는 rejoice 로 번역하였다가 2011년에 boast 로 번역을 바꾸었다.

중요한 기본교리인 것이 확실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죄’라는 것도 단어 그 자체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죄가 있다고 전제해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죄’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5장 12-21절이 원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12절:새번역)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원래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즉 ‘영원히 살 수 있다’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말씀하신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창3:22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만일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수 있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이 말하는 것은, 원래 영생해야 할 인간이 죽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23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12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영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입니다.

13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쁜 행위를 해도, 만일 그 행위에 대한 법이 없다면 그것이 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몰카 범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몰카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몰카 범죄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을 죄로 규정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⁵ 나쁜 행위가 죄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모세시대에 주어졌는데, 당연히 모세 이후부터는 그 율법으로 죄를 판단하게 되지만, 모세 이전에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똑같이 나쁜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에 그것이 죄로 규정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4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4절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란, 진짜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던 시절이기에 죄인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었으니 죽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아담~모세 시대에

⁵ 이것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관해서는 창세기 강해 9 (유익회 목사) 3장[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4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분’ 즉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으므로, ‘장차 오실 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 한 분 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마치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은 효과를 가져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original sin)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어야만, 14절에서 말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그것은 바로 원죄 때문이다. 원죄는 ‘대표자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 모두가 갖게 된 죄의 책임이므로, 율법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도 다 이 원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⁶

12-14절에 나오는 원죄의 근거를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⁶ 영아 사망도 마찬가지로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아들이나 태중의 아이들은 아직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도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원죄가 있을 때에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 | |
|--------------------------------|--|
| (12절)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 [해설] 원래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으나 죄를 범하게 되면서 죽음이 찾아왔다 |
|--------------------------------|--|



| | |
|--|--------------------------------------|
|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해설] 모든 인간이 죽는 이유는,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
|--|--------------------------------------|



| | |
|---|---|
|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 [해설] (죄형법정주의 ⁷) 아무리 나쁜 행위를 해도 법이 없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나쁜 행위들이 있었으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었다 |
|---|---|



| | |
|---|---|
| (14절)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 [해설] 아담~모세 기간 동안에는 율법이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는가? |
|---|---|



| | |
|--------------------------------|---|
| (14절)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 [해설] 아담도 예수님(장차 오실 분)처럼 모든 인류의 대표이다.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에,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원죄가 있는 것)이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는 것. |
|--------------------------------|---|

⁷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해 9 (유익회 목사) 3장[2]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등장하는 ‘더욱더(much more)’]

15..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로서의 아담이 지은 죄로 원죄를 설명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항의가 따라오게 됩니다. “나는 선악과의 맛도 보지 못했는데,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아담을 대표자로 원한 적이 없는데, 왜 그가 모든 인류의 대표인가? 나는 대표자 원리(아담이 우리의 대표인 것)를 거부한다”

물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라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은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대표자’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대표자 아담’의 **부정적 영향력**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대표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믿게 된다면, 오히려 ‘대표자 원리’가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은 다시 한번 ‘더욱더’를 사용하여 강조하게 됩니다.

| | |
|--------------------|--|
| 대표자 아담의 부정적 영향력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 따라서 모두가 죽게 됨 |
| 대표자 예수의 선한 영향력 | 누구나 그를 믿기만 하면 죽음보다 더더욱 큰 은혜 즉, 생명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얻음 |

‘대표자 원리’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

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아담이 대표자였기에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영향력을 완전히 **압도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대표자 원리가 없다면, 우리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17은 ‘더더욱’을 또 한번 사용하여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설명합니다.

17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 하게 되었다면 ...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롬 5장은 ‘더더욱’을 무려 4번이나 사용해 가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강조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 문서는 헤세드교회 홈페이지 <http://hsdch.org>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